

제 1 교시

국어 영역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1월 17일 저녁>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한 내용을 판단이라 하면 이러한 판단을 언어 형식으로 나타낸 것을 명제라 한다. 이처럼 판단과 명제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언어 형식으로 나타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논리학에서는 판단보다는 명제를 더 많이 사용한다. 논리학에서는 명제를 참과 거짓을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 사태가 포함된 문장으로 규정한다. 그래서 논리학의 문장은 중의적이고 모호한 성격을 띤 자연언어가 아닌, 참과 거짓의 진리치를 판정할 수 있는 논리 언어를 사용한다.

이처럼 전통적인 명제론 차원에서 볼 때, 명제는 바깥 세계에 존재하며 특정하게 설정된 논리적 모형과 실제 물리적 배경 속에서 사태와 직접 대응을 통하여 참과 거짓의 진리치를 판정한다. 하지만 사태의 실재적 측면에서 보면, 명제에 대한 참 거짓의 판단은 유동적일 수 있다. 또한, 사태의 존재 배경이 되는 세계에 따라 명제에 대한 참과 거짓의 판단이 바뀔 수 있다. 이는 명제의 참과 거짓의 판단이 외부 세계의 사태 존재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화자 자신이 개념화한 세계에 사태가 존재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음을 보여 준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예를 살펴보자.

철수가 안개 낀 도로를 운전하다 앞에 움직이는 사물을 보았다. 철수는 그것을 검고, 작은 강아지로 생각하고 옆으로 피했다. 하지만 가까이 갔을 때 그것이 검은 비닐봉지라는 것을 깨달았다. 철수는 놀라며 검은 강아지가 검은 비닐봉지로 변했다고 생각했다.

이 사례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명제를 도출할 수 있다.

- (가) 도로에 검은 강아지가 있다.
- (나) 도로에 검은 비닐봉지가 있다.
- (다) 철수의 눈에는 검은 강아지가 비닐봉지로 변했다.

전통적인 명제론에 의하면, (가)와 (다)는 거짓에 해당하고, (나)는 참에 해당한다. 그러나 실재성을 중심으로 철수 입장에서 바라보면, (가)~(다)는 모두 참이라 할 수 있다. 철수는 운전하는 과정에서 사물에 접근하여 그 실체를 확인하면서 점차 참과 거짓을 수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언어 사용자가 어떤 명제의 참과 거짓을 판독하는 일은 외부 세계의 사태와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달려 있지 않다. 실재적 측면에서 보면, 명제는 화자 자신이 개념화한 세계 내의 사태를 지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명제가 지시하는 사태는 인간의 고유한 자각 체계와 행동에 중재되고 인간의 마음에 의해 해석되어 투사된 세계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은 객관적이고 보편적으로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없는 한계를 **㉠** 지닌다. 이러한 한계는 역설적으로 풍부한 상상과 사고를 할 수 있게 한다. 당장 눈앞의 사태만을 대상으로 하여 사고하고 언어화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이를 넘어 다른 세계를 사고하고 언어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소설 속 허구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사태도 명제의 형식으로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다.

박지원의 소설 「허생전」에 등장하는 허생은 가공의 인물로, 소설 속에서만 존재할 뿐 우리가 사는 실제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허생전」을 읽으며 허생에 관한 지식들을 머릿속에 구축할 수 있다. 아울러 박지원이 구축해 놓은 소설 세계는 허생의 물리적 환경의 정체로서 허생의 개념에 연합되어 저장된다. 이에 따라 언어 사용자는 허생이 실재하는 세계가 존재하지 않지만, 언어적 경험들을 통해 자신의 머릿속에 허생의 개념을 마련해 놓는다. 이와 같은 개념은 특정한 물리적 환경에 기반하여 구성되며, 그 물리적 환경은 개념이 존재하기 위한 배경 역할을 하며 특정 세계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10.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연언어 자체는 논리학의 대상이 되기엔 부적합하다.
- ② 언어 사용자는 명제의 참과 거짓을 판별한 이후에도 수정이 가능하다.
- ③ 전통적 명제론에 따르면, 명제의 참과 거짓은 바깥 세계에 일어난 사태에 대응한다.
- ④ 언어 사용자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사태와 관련된 명제의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없다.
- ⑤ 명제가 지시하는 사태의 실재성 측면에서 볼 때, 사태는 언어 사용자 자신이 개념화한 세계에 존재한다.

11. [A]에 비추어 볼 때, ㉠과 ㉡에 대해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허생은 조선인이다.
- ㉡ 허생은 존재하지 않는다.

- ① 소설 속의 세계를 배경으로 할 경우, ㉠은 참이다.
- ② 소설 속의 세계를 배경으로 할 경우, ㉡은 거짓이다.
- ③ 실재하는 현실 세계를 배경으로 할 경우, ㉠은 참이다.
- ④ 실재하는 현실 세계를 배경으로 할 경우, ㉡은 참이다.
- ⑤ ㉠과 ㉡의 진위는 허생이 어떤 물리적 배경과 연합해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1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와 같은 탐구 활동을 했다고 할 때, 이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보 기 > —

A는 해가 지고 있는 시간대를 골라 10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B의 어머니와 닮은 C를 세워두고 계속 손을 흔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 A는 옆에 있는 B에게 지금 100m 밖에서 손을 흔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보았다.
- A는 B와 함께 걸어가다 C의 2m 앞에서 다시 한번 B에게 손을 흔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보았다.

- ① 100m 밖에서 B가 C를 두고 '나의 어머니가 맞다'라고 판단했다면, 이는 명제의 실재성 측면에서 거짓이겠군.
- ② 100m 밖에서 B가 C를 두고 '나의 어머니가 맞다'라고 판단했다면, 이는 전통적인 명제론 측면에서 참이겠군.
- ③ 2m 앞에서 B가 C를 두고 '나의 어머니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면, 이는 전통적인 명제론 측면에서 참이며, 명제의 실재성 측면에서도 참이겠군.
- ④ 100m 밖에서 B가 C를 두고 '나의 어머니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면, 명제의 실재성 측면에서 볼 때 B의 판단은 외부 세계의 사태와의 직접 대응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겠군.
- ⑤ 100m 밖이건, 2m 앞에서건 B가 C를 두고 '나의 어머니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면, 명제의 실재성 측면에서 볼 때 B의 판단은 외부 세계의 사태 존재 여부에 의해 결정된 것이겠군.

13. 문맥상 의미가 ㉠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조카는 어릴 때의 외모를 그대로 지니고 있었다.
- ② 그는 그녀와 처음 만났던 때를 늘 가슴속에 지니고 있었다.
- ③ 몸에 지니고 있던 서류가 바람에 날아간 것은 그 순간이었다.
- ④ 그 사람들은 대부분 본인은 알지 못하는 편견을 지니고 있다.
- ⑤ 그는 이번 계약을 성사시켜야 할 책임을 지니고 비행기에 올랐다.

[10~13] 독서(인문) 명제의 진위 (연계 지문: 수능완성 200쪽)

10. [출제 의도]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한다.

④ 명제가 지시하는 사태의 실제성 측면에서 5문단 '우리는 소설 속 허구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사태도 명제의 형식으로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통해 허구의 세계에도 명제의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1문단에서 '논리학의 문장은 중의적이고 모호한 성격을 띤 자연언어가 아닌, 참과 거짓의 진리치를 판정할 수 있는 논리 언어를 사용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4문단에서 '참수는 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사물에 접근하여 그 실체를 확인하면서 점차 참과 거짓을 수정할 것이기 때문이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③ 1문단에서 '명제는 바깥 세계에 존재하며 특정하게 설정된 논리적 모형 속에서 사태와 직접 대응을 통하여 참과 거짓의 진리치를 판정한다'와 2문단에서 '명제의 참과 거짓의 판단이 외부 세계의 사태 존재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를 통해 알 수 있다. ⑤ 4문단에서 '명제가 지시하는 사태는 인간의 고유한 자각 체계와 행동에 중재되고 인간의 마음에 의해 해석되어 투사된 세계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11. [출제 의도] 글의 세부 내용을 추론한다.

③ 6문단에 제시된 '허생은 가공의 인물로, 소설 속에서만 존재할 뿐 우리가 사는 실제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를 통해, 실재하는 현실 세계를 배경으로 할 경우에 ㉠은 참이 아니라 거짓에 해당한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6문단에 제시된 '박지원의 소설 『허생전』에 등장하는 허생은 가공의 인물로, 소설 속에서만 존재한다'를 통해, 소설 속의 세계를 배경으로 할 경우에 ㉠은 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② 6문단에 제시된 '박지원의 소설 『허생전』에 등장하는 허생은 가공의 인물로, 소설 속에서만 존재한다'를 통해, 소설 속의 세계를 배경으로 할 경우에 ㉠은 거짓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④ 6문단에 제시된 '허생은 가공의 인물로, 소설 속에서만 존재할 뿐 우리가 사는 실제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를 통해, 실재하는 현실 세계를 배경으로 할 경우에 ㉠은 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⑤ 6문단에 제시된 '개념은 특정한 물리적 환경에 기반하여 구성되며, 그 물리적 환경은 개념이 존재하기 위한 배경 역할을 하며 특정 세계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를 통해, ㉠과 ㉡의 진위는 허생이 어떤 물리적 배경과 연합해 있는가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12. [출제 의도] 글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여 보기에 적용한다.

③ 4문단에서 '전통적인 명제론에 의하면, (가)와 (다)는 거짓에 해당하고, (나)는 참에 해당한다. 그러나 실제성을 중심으로 철수 입장에서 바라보면, (가)~(다)는 모두 참이라 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사례 역시, '나의 어머니가 아니다'라는 판단은 전통적인 측면과 명제의 실제성 측면에서 모두 참이라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2문단에 따르면, '명제의 참과 거짓의 판단이 외부 세계의 사태 존재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화자 자신이 개념화한 세계에 사태가 존재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 따라서 학생 B는 100m 밖에서 C를 두고 자신의 '어머니'로 판단한다면 이는 명제의 실제성 측면에서 거짓이 아니라 참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전통적인 명제론 측면에서는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외부 세계를 의미하므로 화자의 판단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은 '어머니와 닮은 사람'의 존재일 뿐이다. 그러므로 거짓이다. ④ 2문단에 따르면, 명제의 실제성 측면에서 참과 거짓은 외부 세계의 사태를 직접 대응하여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화자 자신이 개념화한 세계 내에서 판단된다. 외부 세계의 사태와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전통적인 명제론 측면이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⑤ 전통적 명제론에 따르면 참과 거짓은 외부 세계의 사태 존재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반면에 명제의 실제성에서는 참과 거짓을 화자의 마음에 의해 해석하고 투사된 세계를 통해 결정한다. 따라서 외부 세계의 사태 존재 여부에 의해 결정된 것은 명제의 실제성이 아닌 전통적 명제론이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13. [출제 의도] 어휘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한다.

④ ㉠은 문맥상 '바탕으로 갖추고 있다.'의 의미이다. 따라서 '편견을 지니고 있다.'의 '지니다'와 문맥적 의미가 유사하므로,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본래의 모양을 그대로 간직하다.'의 의미로, ㉠과 문맥상 의미가 다르다. ② '기억하여 잊지 않고 새겨 두다.'의 의미로, ㉠과 문맥상 의미가 다르다. ③ '몸에 간직하여 가지다.'의 의미로, ㉠과 문맥상 의미가 다르다. ⑤ '어떠한 일 따위를 맡아 가지다.'의 의미로, ㉠과 문맥상 의미가 다르다.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1월 17일 저녁>

이렇게 작은 산골 ㉠간이역에서 제시간에 정확히 도착하는 완행열차를 보기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님을 익히 알고 있는 탓이다. 더구나 오늘은 눈까지 내리고 있지 않은가.

역장은 손바닥을 비비며 창가로 다가가더니 유리창 너머로 무심히 시선을 던진다. 건널목 옆 외눈박이 수은등이 경중하게 서서 홀로 눈을 맞으며 희뿌연 얼굴로 땅바닥을 내려다보고 있다. 송이눈이다. 갓난아이의 주먹만 한 눈송이들은 어둠 저편에 까맣게 숨어 있다가 느닷없이 수은등의 불빛 속에 뛰어들어 오면서 뚱그렇게 놀란 표정을 채 지우지 못한 채 땅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굉장한 눈이다. 바람도 그리 없는데 눈발이 비스듬히 비껴 날리고 있다. 늙은 역장은 조금은 근심스러운 기색으로 유리창에 얼굴을 바짝 대어본다. 하지만 콧김이 먼저 재빠르게 유리창에 달라붙어 뿌연 물방울을 만들었기 때문에 소매로 훔쳐내야 했다. 철길은 아직까지는 이상이 없었다.

그는 두 줄기가 레일이 두툽한 눈을 뒤집어쓴 채 멀리 뻗어나간 쪽을 바라본다. 낫엔 ㉢철길이 저만치 산모퉁이를 돌아가는 모습까지 뚜렷이 보였다. 봄날 몸을 푼 강물이 흐르듯 만원을 그리며 유유히 산모퉁이를 돌아 사라지는 철길의 끝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도 모든 걸 다 마치고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어느 노년의 모습처럼 그것은 껍이나 안온하고 평화로운 느낌을 주곤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철길은 훨씬 앞당겨져서 끝나 있다. 수은등 불빛이 약해지는 부분에서부터 차츰 희미해져 가다가 이윽고 호물호물 녹아버렸는가 싶게 철길은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그 저편은 **칠혹 같은 어둠**이다. 어둠에 삼켜져 버린 철길의 끝이 오늘밤은 까닭 없이 늙은 역장의 가슴 한구석을 썰렁하게 만든다. 그는 공연히 어깨를 떨어 보며 오른편 유리창 쪽으로 몸을 돌린다. 그쪽은 대합실과 접해 있는 이를테면 매표구라고 불리는 곳이다.

역장은 먼지 낀 유리를 통해 ㉣대합실 안을 대충 휘둘러본다. 대합실이라고 해야 교각 초등학교 교실 하나 정도의 크기이다. 일제 때 처음 지어졌다는 그 작은 역사 건물은 두 칸으로 나누어져서 각각 사무실과 대합실로 쓰이고 있는 터였다. 대개의 간이역이 그렇듯이 대합실 내부엔 눈에 떨찬한 시설물이라곤 거의 없다. 유난히 높은 천장과 하얗게 회칠한 사방 벽 때문에 열 평도 채 못 되는 공간이 텅텅이 넓어 보여서 더욱 쓸쓸스런 느낌을 준다. 천장까지 올라가 매미마냥 납작하니 붙어 있는 형광등의 불빛이 실내 풍경을 어슴푸레하게 드러내 주고 있다.

지금 대합실에 남아 있는 사람은 모두 다섯이다. 한가운데에 툽밥 난로가 놓여 있고 그 주위로 세 사람이 달라붙어 있다. 난로는 양철통 두 개를 맞붙여서 세워 놓은 듯한 꼬락서니로, 그나마 녹이 잔뜩 슬어 있어서 그간 겨울을 몇 차례나 맞고 보냈는지 어림잡기조차 힘들다. 난로의 허리께에 툽밥 모양으로 촘촘히 뚫린 구멍 새로는 툽밥이 타들어 가면서 내는 빨간 불빛이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형편없이 날아빠진 그 **난로 하나로 겨울밤의 찬 공기를 덥히기**에는 어림도 없을 듯싶다.

[중략 부분 줄거리] 대합실에는 병원에 가는 노인과 그의 아들, 중년 사내, 학생운동을 하다 제적당한 청년, 서울 여자,

미친 여자 등이 모여 난로를 쪼며 대화를 나누다가 침묵한다.

사평역을 경유하는 야간 완행열차는 두 시간이나 지난 후에야 도착했다.

막상 열차가 도착했을 때, 대합실에서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던 승객들은 반가움보다는 차라리 피곤함과 허탈감에 젖은 모습으로 열차에 올라탔다. 늙은 역장은 하얗게 눈을 맞으며 깃발을 흔들며 출발 신호를 보냈고, 이어 열차는 천천히 미끄러져 가기 시작했다. 열핏, 누군가가 아직 들어가지 않고 **열차 난간에 기대어** 서 있는 게 보였다. 역장은 그 사람이 재 너머 오 씨 큰아들임을 알았다. 고개를 반쯤 숙인 채 난간 손잡이에 **위태로운 자세**로 기대어 있는 청년의 모습이 역장은 웬지 마음에 걸렸다. 이내 열차는 어둠 속으로 길게 기적을 남기며 사라져버렸다.

한동안 **열차**가 달려가 버린 어둠 저편을 망연히 응시하고서 있던 늙은 역장은 옷에 금방 수북이 쌓인 눈을 털어 내며 대합실로 들어섰다. 난로를 꺼야 하기 때문이었다. 거기서 역장은 뜻밖에도 아직 기차를 타지 않고 남아 있는 한 사람을 발견했다. **미친 여자**였다. 지금껏 난로 곁에 가지 않았던 유일한 사람이었던 그녀는 이제 **난로를 독차지**한 채, 아까 병든 늙은이가 앉았던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집이 어디며, 또 어디서 왔는지 역장은 전혀 모른다. 다만 이때쯤 그녀가 이 마을을 찾아왔다가는 열차를 타고 떠나곤 했다는 정도만 기억할 뿐이었다. 오늘은 왜 이 여자가 다른 사람들을 따라 열차를 타지 않았을까 하고 역장은 의아하게 생각했다. 아마 그 **여자에게** **갈 곳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녀에게 있어서 출발이란 것은 이 하룻밤, 아니 단 몇 분 동안이나마 홀로 누릴 수 있는 난로의 따뜻한 불기만큼의 의미조차도 없는 까닭이리라.

역장은 문득 그녀가 걱정스러웠다. 울겨울 같은 혹독한 추위에 아직 얼어 죽지 않고 여기까지 흘러들어왔다는 사실이 신기했다. 꿈이라도 꾸는 중인지 땀국물에 젖은 여자의 입술 한 귀퉁이에 보일락말락 웃음이 한 조각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이제 참 난처한걸. 난로를 그대로 두고 갈 수도 없고…….

하지만 결국 역장은 김 씨를 깨우러 가기 전에 ㉤툽발을 더 가져다가 난로에 부어 줘야겠다고 생각하며 천천히 사무실로 돌아가고 있었다. 눈은 밤새 내내 내릴 모양이었다.

- 임철우, 「사평역」 -

1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간을 감각적으로 묘사하여 인물들 간의 갈등을 암시하고 있다.
- ②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 객관적 거리를 두고 논평하는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③ 회상을 통해 인물들의 내면 세계를 병렬적으로 나열함으로써 주제를 강화하고 있다.
- ④ 작중 인물이 아닌 서술자의 전지적 시점을 통해 특정 인물의 심리를 제시하고 있다.
- ⑤ 간접 인용의 방식을 활용하여 인물의 말을 제시하여 사건 전개에 긴박감을 조성하고 있다.

19.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간이다.
- ② ㉡: 역장의 근심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이다.
- ③ ㉢: 역장에게 안온하고 평화로운 느낌을 주는 대상이다.
- ④ ㉣: 승객들이 인간관계에 대한 허탈감을 지니게 되는 공간이다.
- ⑤ ㉣: 소외된 인간에 대한 역장의 배려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소재이다.

20.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인물 간의 갈등을, [B]는 인물 간의 화해를 보여 주고 있다.
- ② [A]는 인물 행동의 이유를, [B]는 인물이 취할 행동의 순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A]는 타인에 대한 무관심을, [B]는 타인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④ [A]는 인물들이 느끼는 삶의 고단함을, [B]는 삶의 희망을 나타내고 있다.
- ⑤ [A]는 인물에게 숨겨진 사연을, [B]는 인물이 앞으로 겪게 될 시련을 암시하고 있다.

21.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사평역」은 1970년대 산업화를 배경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애환을 다루고 있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각박한 현실에서 고통받는 민중들의 상황이 쉽게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다양한 소재를 통해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작가는 민중들의 각박하고 고단한 삶에 대해 연민을 드러내며, 그들이 끝까지 삶의 희망을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 ① '미친 여자'가 '난로를 독차지'하는 모습을 통해, 산업화로 인해 각박해진 민중의 상황을 보여 주고 있군.
- ③ '승객들이 '완행열차'를 기다리는 것을 통해, 삶의 희망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민중들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군.
- ② '열차가 '칠후 같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통해, 민중들의 삶이 앞으로도 고단하고 힘들 것임을 암시하고 있군.
- ④ '청년이 '열차 난간에 기대어' '위태로운 자세'로 서 있는 것을 통해, 당시 민중들의 삶이 위태로운 상황임을 보여 주고 있군.
- ⑤ '난로 하나로 겨울밤의 찬 공기를 덮히기'는 어렵다는 것을 통해, 현실에서 고통받고 있는 민중들의 상황이 쉽게 나아지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군.

[18~21] 문학(현대 소설) 임철우, '사평역'(연계 지문: 수능 특강 256쪽)

18. [출제 의도] 작품의 서술상 특징에 대해 이해한다.

④ '늙은 역장은 조금은 근심스러운 기색으로 유리창에 얼굴을 바짝 대어 본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지적 작가 시점을 바탕으로 '역장'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러므로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사평역'과 '대합실'이라는 특정 공간을 감각적으로 묘사하고는 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 인물들의 갈등을 암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전지적 작가 시점이므로 객관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은 옳지 않다. 객관적으로 거리를 두고 인물과 사건을 서술하는 것은 관찰자 시점이다. 그러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역장의 심리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으므로, 회상을 통해 인물들의 내면을 병렬적으로 나열하여 서술하는 것을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이거 참 난처한걸. 난로를 그대로 두고 갈 수도 없고.....'라는 부분을 통해 역장의 말을 직접 인용하고 있다. 따라서 간접 인용의 방식을 활용하여 사건 전개에 긴박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19. [출제 의도] 작품의 내용에 대해 이해한다.

④ '대합실'이라는 공간이 만남과 헤어짐의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승객들은 반가움보다는 자리리 피곤함과 허탈함에 젖은 모습으로 열차에 올라탔다'라는 부분을 통해 연착된 열차에 올라타는 승객들의 마음을 허탈감으로 표현한 것이지 해당 장소에서 허탈감을 느낀 것은 아니다. 선후 관계에 주목하여 읽도록 하자.

[오답 풀이] ① 산업화된 도시와 떨어진 작은 산골에 위치한 간이역인 '사평역'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간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눈이 내리면서 '역장'은 '조금은 근심스런 기색으로 유리창에 얼굴을 바짝 대어 본다.'라는 부분을 통해 열차 선로에 대한 근심이 깊어지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철길'을 보며 '역장'은 '마치도 모든 걸 다 마치고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어느 노년의 모습처럼 그것은 께이나 안온하고 평화로운 느낌을 주곤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모습을 떠올리는 소재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역장'은 대합실에 홀로 남은 '미친 여자'를 위해 난로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려고 톱밥을 가져오기로 한다. 따라서 톱밥은 소외된 인간('미친 여자')에 대한 '역장'의 배려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소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⑤ 소외된 인간에 대한 배려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소재이므로, 적절하다.

20. [출제 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에 대해 이해한다.

② [A]에서 역장이 대합실에 들어서기는 것은 난로를 꺼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A]에는 인물 행동의 이유가 드러나 있다. [B]에서 역장은 김 씨를 깨우기 전에 톱밥을 가져다가 난로에 부어 줘야겠다고 생각하며 사무실로 돌아간다. 따라서 [B]는 인물 행동의 순서를 알려 주고 있다.

[오답 풀이] ① [A]와 [B]에서 인물 간의 갈등이나 화해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B]에서 역장의 타인에 대한 애정이 나타나는 것은 맞지만, [A]에서 역장은 잠들어 있는 미친 여자를 발견하고 이후 여자에게 갈 곳이 없을지 모른다고 추측하고 있으므로 역장은 미친 여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④ [A]에서 역장의 고단함이 나타난다고 볼 수도 있지만, [B]에서 삶의 희망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A]에서 인물에게 숨겨진 사연이 나타나지 않고 [B]에서도 인물이 겪게 될 시련을 암시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21. [출제 의도] 주어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올바르게 감상한다.

① '미친 여자'가 난로를 독차지하는 모습은 다른 승객들이 열차를 타고 떠났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껏 난로 곁에 가지 않았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산업화로 인해 각박해진 민중의 모습으로 보기엔 어렵다. 그러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② 승객들을 태운 열차가 질퍽 같은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그것은 민중의 고단하고 힘든 삶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적절하다. ③ 승객들이 완행열차를 기다리는 모습은 삶의 희망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청년'이 위태로운 자세로 서 있는 모습은 민중들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므로 적절하다. ⑤ '난로'는 민중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소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힘든 시대적 상황인 '겨울'을 사는 민중들을 모두 덮어 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보기>에서 민중들의 현실이 쉽게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1월 18일 오전>

역사가 신채호는 역사를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 과정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그가 무장 투쟁의 필요성을 역설한 독립운동가이기도 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의 이러한 생각은 그를 투쟁만을 강조한 강경론자처럼 비춰지게 하곤 한다. 하지만 그는 식민지 민중과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 간의 연대를 지향하기도 했다. 그의 사상에서 투쟁과 연대는 모순되지 않는 요소였던 것이다. 이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사상의 핵심 개념인 '아'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신채호의 사상에서 아란 자기 ㉠ **본위**에서 자신을 ㉡ **자각**하는 주체인 동시에 항상 나와 상대하고 있는 존재인 비아와 마주 선 주체를 의미한다. 자신을 자각하는 누구나 아가 될 수 있다는 상대성을 지니면서 또한 비아와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아가 생성된다는 상대성도 지닌다. 신채호는 조선 민족의 생존과 발전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조선 상고사』를 저술하여 아의 이러한 특성을 규정했다. 그는 아의 **자성(自性)**, 곧 '나의 나뭇'은 스스로의 고유성을 유지하려는 항성(恒性)과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적응하려는 변성(變性)이라는 두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다. 아는 항성을 통해 아 자신에 대해 자각하며, 변성을 통해 비아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식을 갖게 되는 것으로 ㉢ **설정**하였다. 그리고 자성이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화한다고 하였다.

신채호는 아를 소아와 대아로 구별하였다. 그에 따르면, 소아는 개별화된 개인적 아이며, 대아는 국가와 사회 차원의 아이다. 소아는 자성은 갖지만 상속성(相續性)과 보편성(普遍性)을 갖지 못하는 반면, 대아는 자성을 갖고 상속성과 보편성을 가질 수 있다. 여기서 상속성이란 시간적 차원에서 아의 생명력이 지속되는 것을 뜻하며, 보편성이란 공간적 차원에서 아의 영향력이 ㉣ **과급**되는 것을 뜻한다. 상속성과 보편성은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데, 보편성의 확보를 통해 상속성이 실현되며 상속성의 유지를 통해 보편성이 실현된다. 대아가 자성을 자각한 이후, 항성과 변성의 조화를 통해 상속성과 보편성을 실현할 수 있다. 만약 대아의 항성이 크고 변성이 작으면 환경에 순응하지 못하여 멸절(滅絶)할 것이며, 항성이 작고 변성이 크면 환경에 주체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우월한 비아에게 정복당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아의 개념을 통해 우리는 투쟁과 연대에 관한 신채호의 인식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에 ㉤ **직면**하여 그는 신국민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조선 민족이 신국민이 될 때 민족 생존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신국민은 상속성과 보편성을 지닌 대아로서, 역사적 주체 의식이라는 항성과 제국주의 국가에 대응하여 생긴 국가 정신이라는 변성을 갖춘 조선 민족의 근대적 대아에 해당한다. 또한 그는 일본을 중심으로 서구 열강에 대항하자는 동양주의에 반대했다. 동양주의는 비아인 일본이 아가 되어 동양을 통합하는 길이기 때문에, 조선 민족인 아의 생존이 위협받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식민 지배가 심화될수록 일본에 동화되는 세력이 증가하면서 신채호는 아 개념을 더욱 명료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그는 조선 민중을 아의 중심에 놓으면서, 아에도 일본에 동화된 '아

속의 비아'가 있고, 일본이라는 비아에도 아와 연대할 수 있는 '비아 속의 아'가 있음을 밝혔다. 민중은 비아에 동화된 자들을 제외한 조선 민족을 의미한 것이었다. 그는 조선 민중을, 민족 내부의 압제와 위선을 제거함으로써 참된 민족 생존과 번영을 달성할 수 있는 주체이자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과의 연대를 통하여 부당한 폭력과 억압을 강제하는 제국주의에 함께 저항할 수 있는 주체로 보았다. 이러한 민중 연대를 통해 '인류로서 인류를 억압하지 않는' 자유를 지향했다.

17. 밑글에서 다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신채호 사상의 핵심 개념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
- ② 신채호 사상에서의 자성의 의미
- ③ 신채호가 밝힌 대아와 소아의 차이
- ④ 신채호 사상에서의 대아의 역사적 기원
- ⑤ 신채호가 지향한 민중 연대의 의의

18. 밑글의 **자성(自性)**에 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성을 갖춘 모든 아는 상속성과 보편성을 갖는다.
- ② 소아의 항성과 변성이 조화를 이루면, 상속성과 보편성이 모두 실현된다.
- ③ 대아의 항성이 작고 변성이 크면, 상속성은 실현되어도 보편성은 실현되지 않는다.
- ④ 항성과 변성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대아의 상속성과 보편성은 실현되지 않는다.
- ⑤ 소아의 항성이 크고 변성이 작으면, 상속성은 실현되어도 보편성은 실현되지 않는다.

19.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신채호가 『조선 상고사』를 쓴 것은, 대아인 조선 민족의 자성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유지·계승할 수 있는지 모색하기 위한 것이겠군.
- ② 신채호가 동양주의를 비판한 것은, 동양주의로 인해 아의 향성이 작아짐으로써 아의 자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겠군.
- ③ 신채호가 신국민이라는 개념을 설정한 것은, 대아인 조선 민족이 시대적 환경에 대응하여 비아와의 연대를 통해 아의 생존을 꾀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겠군.
- ④ 신채호가 독립 투쟁을 한 것은, 비아인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이 아의 상속성과 보편성 유지를 불가능하게 하기에 일본 제국주의와 투쟁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군.
- ⑤ 신채호가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과 식민지 민중의 연대를 지향한 것은, 아가 비아 속의 아와 연대하여 억압을 이겨 내고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군.

20. ㉑~㉔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판단이나 행동에서 중심이 되는 기준.
- ② ㉒: 자기의 처지나 능력 따위를 스스로 깨달음.
- ③ ㉓: 여럿 가운데서 어떤 것을 뽑아 정함.
- ④ ㉔: 어떤 일의 여파나 영향이 다른 데로 미침.
- ⑤ ㉕: 어떠한 일이나 사물을 직접 당하거나 접함.

[35~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1월 18일 오전>

건강 상태를 진단하거나 범죄의 현장에서 혈흔을 조사하기 위해 검사용 키트가 널리 이용된다. 키트 제작에는 다양한 과학적 원리가 적용되는데, 적은 비용으로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는 키트를 제작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항원-항체 반응을 응용하여 시료에 존재하는 성분을 분석하는 다양한 형태의 키트가 개발되고 있다. 항원-항체 반응은 항원과 그 항원에만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항체가 결합하는 면역 반응을 말한다. 항체 제조 기술이 발전하면서 휴대성이 높고 분석 시간이 짧은 측면유동면역분석법(LFIA)을 이용한 다양한 종류의 키트가 개발되고 있다.

LFIA 키트를 이용하면 키트에 나타나는 선을 통해, 액상의 시료에서 검출하고자 하는 목표 성분의 유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LFIA 키트는 가로로 긴 납작한 막대 모양인데, 시료 패드, 결합 패드, 반응막, 흡수 패드가 순서대로 나란히 배열된 구조로 되어 있다. 시료 패드로 흡수된 시료는 결합 패드에서 복합체와 함께 반응막을 지나 여분의 시료가 흡수되는 흡수 패드로 이동한다. 결합 패드에 있는 복합체는 금-나노 입자 또는 형광 비드 등의 표지 물질에 특정 물질이 붙어 이루어진다. 표지 물질은 발색 반응에 의해 색깔을 내는데, 이 표지 물질에 붙어 있는 특정 물질은 키트 방식에 따라 종류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한 가지 목표 성분을 검출하는 키트의 반응막에는 항체들이 띠 모양으로 두 가닥 고정되어 있는데, 그중 시료 패드와 가까운 쪽에 있는 가닥이 검사선이고 다른 가닥은 표준선이다. 표지 물질이 검사선이나 표준선에 놓이면 발색 반응에 의해 반응선이 나타난다. 검사선이 발색되어 나타나는 반응선을 통해서 목표 성분의 유무를 판정할 수 있다. 표준선이 발색된 반응선이 나타나면 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LFIA 키트는 주로 ㉠ 직접 방식 또는 ㉡ 경쟁 방식으로 제작되는데, 방식에 따라 검사선의 발색 여부가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 직접 방식에서 복합체에 포함된 특정 물질은 목표 성분에 결합할 수 있는 항체이다. 시료에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목표 성분은 이 항체와 일차적으로 결합하고, 이후 검사선의 고정된 항체와 결합한다. 따라서 검사선이 발색되면 시료에서 목표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판정한다. 한편 경쟁 방식에서 복합체에 포함된 특정 물질은 목표 성분에 대한 항체가 아니라 목표 성분 자체이다. 만약 시료에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시료의 목표 성분과 복합체의 목표 성분이 서로 검사선의 항체와 결합하려 경쟁한다. 이때 시료에 목표 성분이 충분히 많다면 시료의 목표 성분은 복합체의 목표 성분이 검사선의 항체와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므로 검사선이 발색되지 않는다. 직접 방식은 세균이나 분자량이 큰 단백질 등을 검출할 때 이용하고, 경쟁 방식은 항생 물질처럼 목표 성분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 이용한다.

한편, 검사용 키트는 휴대성과 신속성 외에 정확성도 중요하다. 키트의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키트를 이용해 여러 번의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다. 키트가 시료에 목표 성분이 들어있다고 판정하면 이를 양성이라고 한다. 이때 시료에 목표 성분이 실제로 존재하면 진양성, 시료에 목표 성

분이 없다면 위양성이라고 한다. 반대로 키트가 시료에 목표 성분이 들어 있지 않다고 판정하면 음성이라고 한다. 이 경우 실제로 목표 성분이 없다면 진음성, 목표 성분이 있다면 위음성이라고 한다. 현실에서 위양성이나 위음성을 배제할 수 있는 키트는 없다.

여러 번의 검사 결과를 통해 키트의 정확도를 구하는데, 정확도란 시료를 분석할 때 올바른 검사 결과를 얻을 확률이다. 정확도는 민감도와 특이도로 나뉜다. 민감도는 시료에 목표 성분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 키트가 이를 양성으로 판정한 비율이다. 특이도는 시료에 목표 성분이 없는 경우에 대해 키트가 이를 음성으로 판정한 비율이다. 민감도와 특이도가 모두 높아 정확도가 높은 키트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상황에 따라 민감도나 특이도를 고려하여 키트를 선택해야 한다.

35.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LFIA 키트에서 시료 패드와 흡수 패드는 모두 시료를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 ② LFIA 키트를 통해 검출하려고 하는 목표 성분은 항원-항체 반응의 항원에 해당한다.
- ③ LFIA 키트를 사용할 때 정상적인 키트에서 검사선이 발색되지 않으면 표준선도 발색되지 않는다.
- ④ LFIA 키트에 표지 물질이 없다면 시료에 목표 성분이 있더라도 이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 ⑤ LFIA 키트를 이용하여 검사할 때, 시료에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검사선이 발색될 수 있다.

36.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시료에 들어 있는 목표 성분은 검사선에 도달하기 이전에 항체와 결합을 하겠군.
- ② ㉠은 ㉡과 달리, 시료에서 목표 성분을 검출했다면 검사선에서 항체와 목표 성분의 결합이 존재하지 않겠군.
- ③ ㉡은 ㉠과 달리, 시료가 표준선에 도달하기 이전에 검사선에 먼저 도달하겠군.
- ④ ㉡은 ㉠과 달리, 정상적인 검사로 시료에서 목표 성분을 검출했다면 반응막에 아무런 반응선도 나타나지 않았겠군.
- ⑤ ㉠과 ㉡은 모두 시료에 들어 있는 목표 성분이 표지 물질과 항원-항체 반응으로 결합하겠군.

37.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A와 B에 들어갈 말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 < 보 기 > —

검사용 키트를 가지고 여러 번의 검사를 실시하여 키트의 정확성을 측정하였을 때, 검사 결과 (A)인 경우가 적을수록 민감도는 높고, (B)인 경우가 많을수록 특이도는 높다.

- | | A | B |
|---|-----|-----|
| ① | 진양성 | 진음성 |
| ② | 진양성 | 위음성 |
| ③ | 위양성 | 위음성 |
| ④ | 위음성 | 진음성 |
| ⑤ | 위음성 | 위양성 |

38.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살모넬라균은 집단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병원성 세균이다. 기존의 살모넬라균 분석법은 정확도는 높으나 3~5일의 시간이 소요되어 질병 발생 시 신속한 진단 및 예방에 어려움이 있었다. 살모넬라균은 감염 속도가 빠르므로 다량의 시료 중 오염이 의심되는 시료부터 신속하게 골라낸 후에 이 시료만을 대상으로 더 정확한 방법으로 분석하여 오염 여부를 확정 짓는 것이 효과적이다. 최근에 기존 방법보다 정확도는 낮으나 저렴한 비용으로 살모넬라균만을 신속하게 검출할 수 있는 ① LFIA 방식의 새로운 키트가 개발되었다고 한다.

- ① ①을 개발하기 전에 살모넬라균과 결합하는 항체를 제조하는 기술이 개발되었겠군.
- ② ①의 결합 페드에는 표지 물질에 살모넬라균이 붙어 있는 복합체가 들어 있겠군.
- ③ ①을 이용하여 음식물의 살모넬라균 오염 여부를 검사하려면 시료를 액체 상태로 만들어야겠군.
- ④ ①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살모넬라균 오염 의심 시료를 선별하기 위해서는 특이도보다 민감도가 높은 것이 더 효과적이겠군.
- ⑤ ①을 이용하여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었다고 키트가 판정한 경우에도 기존의 분석법으로는 균이 검출되지 않을 수 있겠군.

정답은 네게 있지.

스스로를 믿어. 이 악물고. 시험 잘 봐.

